

1. 후기 보기

후기 보기

1등



자장면

2등



짜뽕

3등



탕수육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메인 메뉴들이 빨리 나오고 서비스가 친절해요

음식이 조금은 늦게 나왔어요

간이 너무 세지만 맛은 있어요

환상적이에요

오랜만에 맛집을 찾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아여

후기 작성

수정

<설명>

우선 <후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기 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돌아가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후기> 버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등수는 별점을 통해 평균을 낸 것을 바탕으로 순위를 내서 1, 2, 3등을 정한 후, 이를 메뉴와 함께 보이게 합니다. 위 메뉴는 임시적으로 넣은 것이며 식당마다 메뉴를 다르게 넣으면 그 메뉴의 이미지와 메뉴 이름에 따라 묶여서 산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기는 작성한 순서대로 저렇게

나오게 돼 있으며 가장 최근에 넣은 후기를 제일 위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이나 최근 음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후기 작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기를 작성할 수 있고,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기를 작성했던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후기 작성

후기 작성

제목 :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자장면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꼭 또 올게여



별 점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후기 등록

취소

<설명>

<후기 보기>에서 <후기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제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그 아래에 위 제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별점을 줄 수 있고 저 옆의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다 끝나게 되면 <후기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에 글이 저장되는데 아이디에 저장된 사람이 먹은 메뉴에 대한 정보를 결제한 정보에서 읽어와 자동적으로 매칭이 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메뉴를 입력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 메시지가 뜨는 데 아래 그림처럼 취소를 누르게 되면 뒷배경은 흐려지고, 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잘 못 누르는 것을 방지하고 그림에도 '네'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되지 않고 <후기 보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후기 작성

제목 :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자장면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꼭 또 올게여

취소

이대로 나가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아니요

★ 별 점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후기 등록

취소

3. 후기 작성



<설명>

위에 나온 1번 사진에서 나온 화면에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2번 사진으로 넘어가며 원래 있던 데이터를 불러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정을 할 데이터가 없으면, 즉 후기를 작성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은 문자가 나오며 이를 다시 터치하게 되면 1번 사진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는 내가 현재 작성한 것이 없으므로 불러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 별 점 계산

후기 보기

1등



자장면

2등



짜뽕

3등



탕수육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메인 메뉴들이 빨리 나오고 서비스가 친절해요

음식이 조금은 늦게 나왔어요

간이 너무 세지만 맛은 있어요

환상적이에요

오랜만에 맛집을 찾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아여

후기 작성

수정

<설명>

별점을 계산을 해서 후기 보기를 보여주는데 이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아래 그림처럼 나타냈습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이 내용이 요구 사항이 아니기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별점을 산출했음을, 그리고 그에 따라 매긴 순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구현을 해 봤습니다.

메뉴 별 별점



1등



자장면



4.5

2등



4.0

3등



3.5

<결론>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사용을 하다보니 처음으로 접하는 것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또, 제출해야하는 산출물에 대해 정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미숙하기도 하고, 결론 도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 데이터 베이스를 거쳐가며 모든 작업이 수행되어야 해서 공유 데이터에 많은 비중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개별로 작동을 시키려고 했으나 로그인과 같은 내용이 무조건 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명이라는 팀 안에서 3개의 팀을 나눠서 진행해 본 적이 처음이라 신선하기도 했는데 서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고, 각자가 생각하는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적절히 조율을 해가며 존중하고 맞춰가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면 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막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어 설계 부분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구현을 했을 때의 편리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